

KNF MAGAZINE

유니저리얼
연말

2021. MAY + JUNE

VOL.155



CONTENTS



COVER STORY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린 5월을 보내고 초여름을 맞이했습니다. 6월에는 흐린 날보다 맑은 하늘을 더 자주 볼 수 있겠지요. 바람이 살랑이는 6월의 오후,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들판의 이름 모를 꽃들이 먹구름이 잔뜩 낀 마음을 달래 주었으면 합니다.

2021. MAY + JUNE

KNF MAGAZINE

유
근
자
력
연
료

발행일 2021년 6월 7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홍보협력실 042-868-1142 기획·디자인·인쇄 반디컴 02-2272-1190

※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RE ENERGY

- 04 **생생 증계**
최익수 사장, 시설안전 현장 점검
2021년도 상반기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 06 **미래 백과사전**
온(溫)택트로 전하는 지역사회 사랑
- 08 **Lunch Box**
소통과 배려, 속도와 정확도는 저희의 힘이죠!
경영지원처 재무원가부
- 12 **별별 키워드**
이것만은 알아 두자! 5, 6월 생활·이슈 정보

CORE PEOPLE

- 14 **직장인 센스 도감**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시작은 '역지사지'로부터
- 18 **느리게 걷기**
푸른 목장에서 안성맞춤 봄나들이
- 22 **차이 나는 사이**
MZ세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방법
- 26 **KNF 이구동성**
자그나 그 신입 직원은 잘 지낼 것이다
- 28 **동행의 꿈**
첨단과학을 응용한 문화재 연구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병목 소장 인터뷰
- 32 **직장인 바이라인**
재테크에 뛰어드는 직장인, 내 집 마련 꿈꿔

CORE CULTURE

- 34 **과학 살롱**
용감한 여성들의 반란
- 36 **코어 건강법**
지긋지긋한 두통, 고질병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 38 **홈-스토랑**
포슬포슬 따뜻한 감자로 든든한 한 끼
감자그라탕 & 감자크로켓
- 40 **M큐레이션**
낯선 방식으로 직조된 익숙한 긴장
SNS 시대의 '딸 찾아 삼만 리' 그린 <서치>
- 42 **KNF NEWS**
- 44 **꿈의 사진관**
이탈리아 사진 합성 이벤트



최익수 사장, 시설안전 현장 점검

· 현장 경영을 통해 안전점검 및 직원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최익수 사장은 4월 27일 제조공정과 사무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취임한 최익수 사장은 이번 첫 안전점검을 통해 원자력 연료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은 물론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설과 구조물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익수 사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경영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최익수 사장은 제조 및 사무 환경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직원과의 소통 행보도 잊지 않았다.

최익수 사장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경영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상반기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의 가상 시나리오 설정

우리 회사는 5월 4일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시 방재요원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핵물질가공시설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의 소집, 비상조직의 가동부터 사고 시설 안팎의 방사선 능력 측정과 제염, 방사선 환경조사와 영향평가까지 전 과정이 포함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에 대비하고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며 복합사고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최익수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방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훈련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방사능 방재훈련이란 원자력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민보호 및 사고 수습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 비상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의 사고수습, 주민 소개 및 대피, 화재진압, 의료구호, 원자력시설 내외 방사선 감시 및 주민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언택트 시대의 따뜻한 교류 온(溫)택트로 전하는 지역사회 사랑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환경과 생활 양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1년여.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시설이 장기 휴관함에 따라 지역 소외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원 서비스마저 중단된 이때, 소외계층을 향한 온(溫)택트 나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2020. 7. 15),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비대면 생활' 보도자료(2020. 11. 18), 기획재정부 '언택트 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블록체인 기술'(2020. 8. 26)



전시회를 인터넷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비대면으로 전환된 생활, 언택트 산업 성장

코로나19 시대를 마주한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만남은 줄어들었다. 그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 되고 있다. 각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줌(Zoom)을 비롯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비대면 사회에 대처 중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 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공간의 제약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온라인 유통산업과 데이터 센터, 엔터테인먼트 등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 선도 시범사업까지 실시됐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중이다.

취약·소외계층을 향한 온택트 나눔 활동

기술의 성장은 환영할 만하지만 취약·소외계층에게 가닿던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이 노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방식으로 기부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위문 활동으로 사회공헌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영상으로 각종 교육을 진행하거나 택배로 물품을 전달한다. 지난해 대전 동구의 복지 브랜드 '천사의 손길'은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후원해 준 기부자를 위해 온라인 감사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 나눔 문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모범을 보이며 복지 사업과 나눔을 이어 간 것이다. 영상으로 이웃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택배로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은 공간 제약이 적어 코로나19 시대에 서로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비대면 사회를 깨우는 경영 혁신과 나눔

우리 회사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업무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온택트 나눔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원자력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9개 협력회사와 비대면 품질보증업무협의회를 진행한 데다 2020년도 사내 혁신경진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최한 사내 혁신경진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음에도 총 50건의 과제가 출품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50건의 과제 가운데 총 9건의 우수 혁신과제를 선정해 공유하기도 했다.

김장 김치를 구입해 대전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0여 곳에 전달한 드라이브 스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와 직원들의 후원금을 송강사회복지관 푸드마켓에 기증한 착한 기부 챌린지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교육용 PC를 기탁하며 주변 지역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

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도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언택트 경영 혁신과 온택트 지역사회 나눔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 낼 것이다.





(좌측부터) 김호영 과장, 남원우 대리, 허지호 직원, 이모아 직원

소통과 배려, 속도와 정확도는 저희의 힘이죠!

경영지원처 재무원가부

우리 회사의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겠나마는 재무와 원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원가부의 존재감은 보다 다양한 이유로 그 어느 곳보다 묵직하다. 숫자로 우리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제시하는, 만만치 않은 난도의 업무를 소화하는 재무원가부에 전달된 맛있고 예쁜 점심 도시락! 소풍 같은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을 공개한다.





(좌측부터) 윤희성 인턴, 백영환 부장, 김초록 대리, 한별희 직원, 권혁준 대리

소풍 같은 하루, 회사에서 즐겨요

이른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가 싶더니 점심시간이 다가 오자 하늘이 파랗게 개기 시작했다. 소풍 가는 날이면 꼭 비가 왔던 어린 시절의 슬픈 추억은 어느새 저만치 날려 버리고 재무원가부 직원들 모두가 저 멀리서 손에 원가를 한 꾸러미 들고 오는 동료들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지켜본다.

이들에게 도착한 것은 점심 도시락. 배달된 도시락을 펼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른다. 샌드위치, 새우구이, 샐러드, 과일 컵까지 그야말로 눈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먹음직한 음식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부서를 이끌고 있는 백영환 부장부터 막내 직원까지 모두 30대를 넘기지 않는 젊은 부서답게 감정 표현에 솔직하니 그 활력이 주변을 지나가는 직원들에게까지 미소로 번져 나간다. Lunch Box 주인공인 재무원가부는 2021년 초, 재무회계팀과 원가관리부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탄생한 곳이다. 백영환 부장이 재무원가부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재무원가부는 한마디로 회사의 재무와 원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의 가계를 도맡아서 운영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지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을 판가름할 수 있는 회계 요소를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재무원가부의 근무 인원은 총 9명이다. 자금 출납, 결산·세무, 원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숫자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저희 부서는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연 단위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특히 한전 일정에 맞춰서 연결 결산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게 됐을 때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이라는 오류가 나올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 애로사항은 각 부서의 막내 직원들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내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매번 문의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백영환 부장이 너털웃음을 짓는다.

소통과 배려는 우리의 힘

오늘 소풍 도시락을 가장 반가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막내 집단이다. 업무 경력은 길지 않지만 상사와 선배들에게 예뻐뽐을 듬뿍 받는 막둥이들답게 그간의 업무 스트레스를 잊고 힐링과 여유를 마음껏 즐긴다. “대화가 잘 통하고 권위 의식보다는 배려와 애정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는 선배들 덕분에 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막내 직원들의 이구동성이 유쾌한 웃음꽃을 덤으로 뿌린다.

올 1월에 입사한 이모아 직원은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도 하나

꺼내 놓았다.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신입 직원인 제가 작년에 있었던 회계처리 문제를 수습해야 했거든요. 선배님들에게 계속 여쭙고 부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외부에도 계속 자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아 직원의 곁에 있던 한별희 직원도 이야기를 보낸다.

“저희 부서는 업무 실수에 대해 질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숫자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거나 경직돼 있으면 오히려 실수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 덕분에 저희들은 선배님들에게 더 편하게 많이 질문하고 함께 의논할 수가 있어요.”

부서의 중간 관리자 김호영 과장은 이런 후배들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리지만 모두가 야무지게 일을 잘합니다. 사수가 붙어서 일을 꼼꼼히 가르쳐 준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묻고 찾아가면서 각자한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요. 선배 입장에서는 대견하고 고맙죠.”

각자의 도시락을 소중히 안은 채 서로에 대한 칭찬과 애정을 대놓고 펼치는 선후배들의 모습이 더없이 훈훈하다.

더 나은 우리를 위한 모두의 한걸음

회사의 탄생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는 회계 부서의 일원으로서 이들이 가진 자부심은 매우 크다.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대내



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산정·분석한 뒤 문제를 도출해 피드백을 주는 부서로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은 부서원 모두를 스스로 좀 더 채찍질하게 만든다.

“젊고 근속기간과 부서 경력이 짧은 조직원들의 회계 역량을 끌어올리고 부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외부 시선으로 회계 부서를 봤을 때 느꼈던 아쉬운 점 또한 스스로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백영환 부장. “새로 들어올 후임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는 김호영 과장. 오는 6월부터 교육 휴가를 내 삼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결산 실무자 교육을 들을 예정이라는 한별희 직원, 세무 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직무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모아 직원까지 모두의 의지가 차돌처럼 단단하다.

배달된 도시락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각자 사무실 자기 자리

에 앉아서 먹었다. 이동을 하면서 백영환 부장은 잠깐이었지만 올해 들어온 막내 직원들의 맨 얼굴을 처음 봤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변변한 회식 자리조차 가지지 못했던 터라 이번 도시락 파티가 모두에게 더없이 귀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도시락을 먹기 전,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온다. “도시락이 정말 예뻐서 사진 찍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라는 직원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 덕에 모두의 입맛까지 확 도니 확실히 맛있는 음식은 좋은 사람들과 먹어야 제맛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서로 도우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무원가부 파이팅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메시지로 서로의 에너지를 팡팡 북돋우는 사람들. 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누린 오늘의 즐거웠던 기억은 내일을 향해 쪽쪽 뻗어 가는 부서 전체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만은 알아 두자!

5, 6월 생활·이슈 정보

소소하지만 알아 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달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소개한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놓쳤던 뉴스부터 앞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까지 담았다.

#1

#영화_<미나리>
#K-할머니
#아카데미상
_최초_수상



재미교포 정이삭 감독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화제다. 윤여정 배우는 K-할머니 연기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고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젊은 세대들이 영화 속 할머니의 감성에 공감하고 호감을 느껴 '할매니얼'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2



#이스라엘_집단면역_성공
#세계_최초_실외_노마스크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을 발 빠르게 해낸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실외 노마스크 국가를 선언했다. 4월 말 기준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백신 수급과 접종률, 접종 순서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는, 전 세계 노마스크 시대는 언제쯤 돌아올지 관건이다.





#3

#안전속도_5030 #전국_일반도로_속도제한

운전자는 전국 도심의 일반도로에서 최대 시속 50km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이면도로에서의 운행 속도는 최대 시속 30km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느림보 주행이 답답하다고 시속 80km 이상 초과속을 하면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4

#아파트_택배_갈등 #입구에서_도보_배송 #공원형_아파트가_뭉길래

지하에만 주차장이 마련된 공원형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택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되면서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입구에 상품을 내린 후 입구부터 일일이 도보로 박스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버택배, 거점택배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5



#전·월세_신고_의무화 #임차인_권리_확정일자_자동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의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이러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선한_영향력_가게 #국민들이_돈쫓내다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치킨집이 화제가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가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5월 첫 주 기준 대전에서는 총 7개 점포가 선한 영향력에 동참 중이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응답하듯 소비자들은 해당 점포에 주문을 하며 힘을 보탠다.

#7

#공유킵보드_비매너_주차 #대전은_전용주차존_조성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공유킵보드가 비매너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몇몇 이용자가 차량 전용 주차 구역이나 통행로 입구에 공유킵보드를 세워 두면서부터다. 대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유성온천역에 전용주차존을 조성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시작은 ‘역지사지’로부터

스마트팩토리기획팀 **황인선** 과장



마스크에 가려진 코로나19 시대의
 첫인상은 눈매에서 결정될 때가 많다.
 스마트팩토리기획팀 황인선 과장은
 서글서글한 인상답게 시종일관
 웃음과 유쾌함을 잊지 않았다.
 물론 입사 10년 차의 프로 ‘일잘러’답게
 업무 얘기를 할 때는 곧바로 ‘진중 모드’로
 전환했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넬 때는
 골똥한 생각 끝에 단어를 골라 말했다.



“

‘원자력 르네상스’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2011년 1월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정확히 10년 차가 된 스마트팩토리기획팀 황인선 과장. 과거의 10년은 강산을 변하게 했지만, 요즘 속도로 10년은 산업의 지형도를 바꾼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황인선 과장은 그 변화를 원자력연료 관점에서 몸담은 부서를 통해 체감했다.

“첫 업무는 ‘원자력연료 피복관 제조공장 증설(논산공장)’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로 불리던 때로, 원자력연료의 핵심부품인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공장 증설은 원자력 부흥기를 이어 갈 대형 프로젝트였죠.”

증설을 완수한 2016년 이후 그는 노동조합 전임으로서 좀 더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황인선 과장이 최근 산업의 굵직한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무를 맡은 건 2018년부터. 그가 속한 스마트팩토리 기획팀은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춘 ‘KNF형 뉴딜’의 비전 중 하나인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우리 회사 사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책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황인선 과장은 스마트원자력제조시설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건 중 공정기술의 빅데이터화를 위한 과제의 PM을 맡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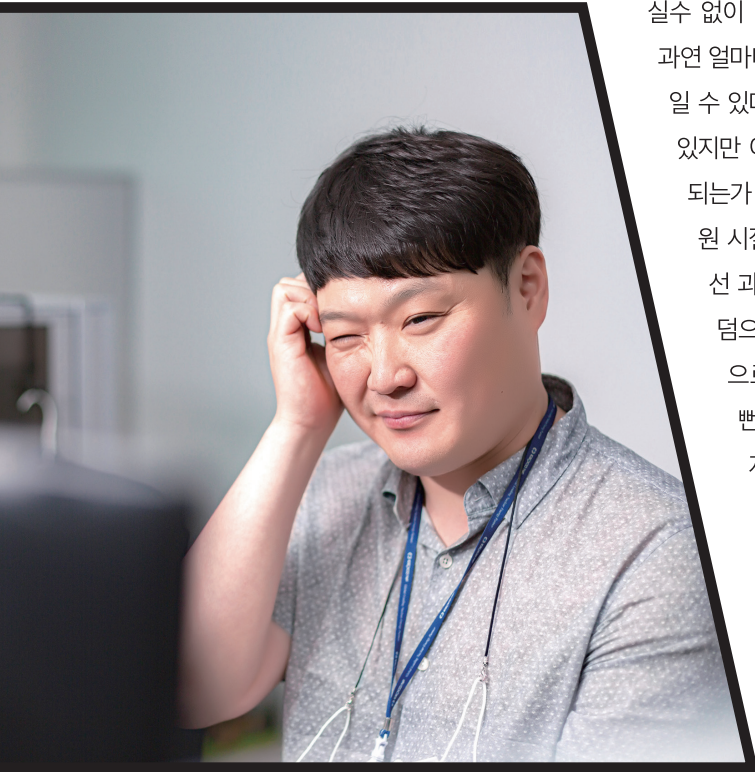
‘역지사지’의 자세와 루틴의 효과

이처럼 직장생활의 적잖은 시간을 변화의 최접점에서 보내며 프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로 성장하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특유의 성실함과 추진력이 걸음으로 드러나는 황인선 과장의 장점이라면, 스스로 시도하고 정착시킨 루틴은 수면 아래로 씬 없이 움직이는 백조의 발놀림과도 같은 것.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엑셀로 그날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메모해 두었던 내용을 한번 훑어본 다음, 오늘의 할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런 다음 퇴근 직전에 다시 보며 놓친 업무는 없는지 체크하죠.”

어느새 5년이 넘었다는 업무일지는 이제 없어선 안 될 그만의 역사이자 소중한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업무의 빈틈이 채워지면서 시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황인선 과장. 여기에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로 10년 차 직장인의 팁 하나를 추가했다. ‘역지사지’는 황인선 과장이 ‘사보 원자력연료’ App-Book에 자신의 업무 노하우로 꺼내 놓은 단어. 다소 흔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재발견하는 것. 그는 ‘직장인 센스 도감’을 통해 후배들에게 귀뜸할 노하우의 저변에도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인드와 자세가 깔려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팩토리기획팀
황인선 과장이 전하는
센스 있는 직장생활을
위한 4가지 팁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도록



실수 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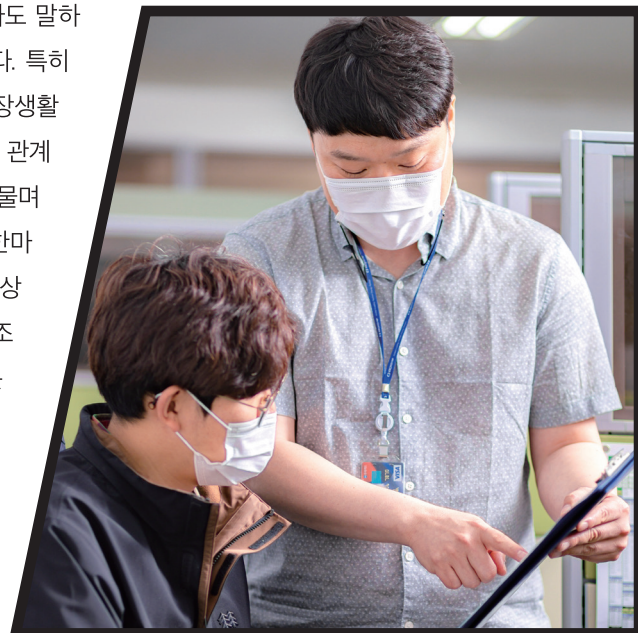
과연 얼마나 될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실수는 고수로 가는 하나의 미션 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의 대처법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치를 키우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실수가 곧 실력이 되는 낙인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신입 직원 시절, 급한 성격에 의욕까지 더해지면서 종종 실수를 저질렀다는 황인선 과장은 한 번의 큰 실수에서 위기 대처 능력과 함께 선배의 자세까지 덩으로 배웠다. 바이어 측이 업데이트해 제공한 도면 대신 이전의 도면으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자칫 프로젝트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뻔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저를 대신해 선배가 나서서 침착하게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그 때 생각했죠. 선배는 실수한 후배가 당황하고 있을 때 대신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라고요.” 덕분에 실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그는 이후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직장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후배가 실수했을 때 직면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선으로써 업무적으로도, 후배에게도 길을 열어 주는 선배가 됐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에는 온도가 담겨서 같은 문장이더라도 말하는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달된다. 특히 바쁘고 다소 예민하게 돌아가는 직장생활 내에서의 화법은 접속사와도 같아서 관계를 잇기도, 싸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물며 잘못된 후배를 앞에 두고 건네는 선배의 말 한마

디는 자칫 비수로 둔갑하는 법. 황인선 과장은 이런 상

황에서 습관처럼 ‘역지사지’를 떠올린다. 선배 앞에서 고개를 앞으로 푹 꺾고 조마조마했을 때 끝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상기하는 것. “예를 들면 ‘너 이것밖에 못 해?’ 같은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후배의 실력을 깎아내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직장 안에서만 큼은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존대를 하려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 친하다는 이유로 자칫 말을 함부로 하는 자신을 경계하고, 정에 치우쳐 업무상 중요한 일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필요할 때,
담당자가거르면,
가장 효율적인 채널로

많은 직장인이 '회의'에서 직장생활의 회의감을 느낀다는 건 이미 많은 설문조사가 대변해 준 사실. 하지만 협업이 생명인 회사에서 회의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한 현실이다.

PM인 황인선 과장도 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니 의견 조율이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 자주 놓인다. 하지만 프로젝트 참여 인원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황인선 과장의 설명. 대부분 필요할 때 해당 업무 담당자들끼리 사내 메신저, 이메일, 전화 등 가장 효율적인 채널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까닭이다.

회의가 불가피할 때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갑작스럽게 소집한 회의는 개개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요. 안건을 사전에 공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회의실에 머무는 시간 단축에 효과적이에요."



의견 조율의 원칙,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PM으로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 종종 직면한다.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논쟁으로 치달다가 감정적 갈등으로 번질 때도 진화는 결국 리더의 몫. 이럴 때 황인선 과장은 논지가 본질에서 이탈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의견이 갈렸던 지점으로 돌아가 과제의 방향에 더 부합하는 의견을 선택하고 다음 주제로 나아가야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 감정적 충돌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행히 견잡을 수 없으리만치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지금껏 경험한 적 없다는 그는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내년 프로젝트 종료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에 성큼 가까워지는 굵직한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 목장에서의 안성맞춤 봄나들이

연료생산처 연료운영팀 신민철 대리 가족

신민철 대리 가족이 봄바람을 따라 비단결처럼 흐르는 초록빛 호밀밭에 들어섰다. 이제 막 돌을 지난 딸과 함께 경기도 안성의 한 체험목장으로 봄나들이를 나섰다. 손녀의 건강과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신민철 대리의 부모님도 함께 동행했다. 목장의 푸르름과 함께한 다섯 식구의 첫 번째 봄나들이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 딸의 돌 기념 나들이가 기사와 사진으로 남아 더욱 의미 있고 좋아요 ”



아이와 함께 즐기는 첫 번째 소풍

하루 전에는 온종일 비가 내린다 싶더니, 날이 당일이 되자 날씨가 화창해진다. “하늘이 우리 가족의 봄나들이를 돕네요.” 신민철 대리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자, 곁에 있던 아내 안혜진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품에 안긴 딸 신지안 양도 설레는 듯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민철 대리의 부모님 신언철 씨와 배현수 씨가 앞서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다. 딸아이를 동반한 이들 가족의 첫 번째 소풍은 이렇듯 기분 좋게 출발했다.

신민철 대리는 2년 전에도 사보의 여행 코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변산반도에서 여름휴가를 즐겼다고. ‘혹시 가족들이 인터뷰와 사진 촬영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도리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이 기사와 사진으로 남아 더 좋았다는 게 신민철 대리의 이야기다.

“이번에도 코너 신청 공지를 보자마자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번에는 처가 식구들과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시부모님과 딸 돌 기념 나들이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역시 가족과 함께하니 든든하네요(웃음).”

신민철 대리가 정한 봄나들이 행선지는 안성팜랜드다. 40만 평(약 1,322,314㎡)에 달하는 초지에 마련된 체험형 목장으로,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가족들이 고심 끝에 첫 번째 방문 장소를 호밀밭으로 정한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봄별을 즐기며 천천히 이동하는 사이,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정겹게 오간다. 부모님이 “너희가 잘 살아서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하며 신민철 대리 부부의 결혼기념일과 손녀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안혜진 씨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두 분을 뵈 때마다 ‘편안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버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어머니는 부족한 점이 보이실 텐데도 차분하고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알려 주시죠. 서로의 상황을 미리 헤아리고 배려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지내는 나날이 늘 즐거워요. 이 자리를 빌려 시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가 있기에 행복한 하루하루

5월의 호밀밭은 신기하다. 한없이 푸르다가도 바람과 만나면 보드라운 은빛 속살을 수줍게 뽐낸다. 그 한가운데에 선 가족들도

“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

똑같은 생각인 듯 감탄하며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든다. 신민철 대리가 가족의 모습을 연신 사진으로 남기자, 배현수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의 평소 행실을 자랑한다.

“민철이는 저희 두 아들 중 막내인데요. 그래서인지 늘 딸처럼 살갑고, 부모를 잘 챙겨요. 매일 퇴근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정도죠. 그뿐인가요? 집에 오면 반찬을 직접 하기도 하고, 부모 생일에는 아내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모습 자체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물론 애들이 한 음식도 맛있지만요(웃음).”

‘머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 아내의 아들 자랑을 듣고 있던 신민철 씨가 이번에는 머느리를 칭찬하고 나선다.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와중에도 아들과 힘을 합쳐 집안일도 잘하고, 양가 어른들도 살뜰하게 챙긴다는 게 시아버지의 증언이다.

“손녀도 아들 내외를 닮아서인지 참 씩씩하고 암전해요. 어제는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같이 나왔는데, 밥도 잘 먹고 웬만해서는 칭얼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으니, 아들 내외와 손녀 모두가 복덩이인 셈이죠.”

부모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신민철 대리 부부는 2015년 말에 처음 만났다. 신민철 대리의 동기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혜진 씨였던 것. 2년 조금 넘게 연애한 끝에 2018년 4월에 결혼한 두 사람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격이, 남편은 아내의 지혜로운 성품과 부지런함이 좋다며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두 사람. 잉꼬부부가 따로 없다.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남다른 인연이어서인지 아내는 함께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 이렇게 예쁜 딸도 태어난 거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여행지 정보

안성팜랜드

초지 위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식물들과 가까이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목장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 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홈페이지 nhasfarmland.com

문 의 031-8053-7979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피크닉

호밀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이 동물을 만나기 위해 목장으로 향한다. 양들이 사는 면양마을에 들어서자 단정하게 털을 깎은 양들이 고즈넉이 풀을 뜯고 있다. 조심스레 다가가 양의 등허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세 사람. 오히려 부모보다 딸이 더 겁 없이 양에게 손을 뻗는다. 이심전심일까, 그저 자신을 예뻐할 뿐이란 걸 깨달은 듯 양들이 한결 양전해진다. 신민철 대리 가족의 얼굴에 푸근한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뒤이어 바로 앞의 토끼마을에서 먹이 주기 체험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풀밭에 돛자리를 깔고 둘러앉은 다섯 사람 앞에 ‘부모님표 김밥’이 등장한다. 대전에서 이천까지 올라 오느라 노곤했을 아들 가족을 위해 부모님이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이다. 멸치가 들어 있어 고소함이 남다른 김밥으로 배를 채운 뒤 제철 과일로 입가심을 하고 있자니, 그간 함께 쌓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즈음 부모님과 저희 부부, 형과 형수까지 모여서 놀이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다 큰 자식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이 잘 어울려 주셔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죠. 때때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저희 가족의 취미 중 하나예요. 어떤 계기든 만나면 최소 하루는 붙어 있으려고 하니, 이 정도면 화목한 가정 아닐까요?”

여러 갈래의 이야기 끝에 부모님이 “더도 말고 지금처럼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신민철 대리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하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한다. 그러자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딸이 함께 고개를 끄덕 거린다. 덕분에 한층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다섯 식구가 함께한 첫 번째 봄나들이가 아름답게 저물어 간다.



MZ세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방법

조직이 단단해지려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끈끈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려면 소통이
중요한 법이다. 우리 회사 50대 이상
직원들이 20~30대 직원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기성세대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글. 유경철(소통과 공감 대표)



신세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원활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임 팀장님, 이번에 들어온 신입 직원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적응하고는 있는데, 과거 신입 직원들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스펙도 좋고 똑똑한데 왠지 정이 안 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딱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자기 일이 끝나면 인사만 하고 바로 퇴근해 버리나…….”

“요즘 상사들이 신입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밀레니얼 리더십 교육도 받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테니 잘 성장할 수 있게 코칭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겠죠.”

“그 코칭 방법 말인데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신세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방법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조직에는 생기가 돈다. 후배가 들어왔다는 기쁨과 함께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입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Z세대들은 과거의 신입 직원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선배로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코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신입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강조했다. “너희가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처럼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흔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사장이 아닌데 사장처럼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말은 강압적인 요구에 불과하다. Z세대들에게는 지금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업무를 잘 해내면 나중에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조직의 성과나 성장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밥을 잘 사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상사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까칠하게 대하더라도 일을 잘 알려 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배들을 더 좋아한다. 막연하게 ‘잘해 주고 인간적으로 가까이 가면 되겠지’ 같은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Z세대들과 가까워지면서 업무적으로도 성과를 내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팁



TIP 1.

Z세대들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흔히 신조어라고 하는, 신세대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있다. 온라인상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흔히 사용하므로 신조어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신조어 퀴즈를 내면 2개 이상 맞추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만큼 상사들이 신조어에 둔감하다는 의미다. 사실 신조어를 몰라도 업무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조직에서는 리더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대와 친밀해지고 싶다면 상대방이 쓰는 언어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에 대화하다 신입 직원이 “제가 너무 TMI를 남발했죠”라고 했을 때 부장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입 직원은 거리감을 느낄 것이다. TMI(Too Much Information) 같은 경우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JMT(진짜 맛있는 음식), 마상(마음의 상처)과 같은 신조어는 많이 사용하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편이 좋다.

TIP 2.

긍정적인 소통, YES 커뮤니케이션 활용하기

Z세대는 칭찬에 매우 익숙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 타인과 비교하면서 일을 잘 하라고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대화는 긍정적인 접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YES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질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질책을 할 때도 사실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번 잘못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질책을 듣고 화가 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오히려 지적인 상대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니 질책을 할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TIP 3.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

Z세대들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발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불편해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TIP 4.**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 주기**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앞에서 말했듯이 Z세대들은 일할 때 이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이 나에게 가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상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최근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무 만들기, 직무 재창조를 의미하는 잡 크래프팅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켜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잡 크래프팅의 최종 목표는 잡 크래프터가 돼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Z세대들은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 복사를 시킬 때도 “회의해야 하니깐 보고서 10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 회의가 무척 중요한데, 이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10명 모두 보고서를 봤으면 해요. ○○ 직원님이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와 주면 회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라고 하면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더 크게 느낀다. 또한 하는 일의 의미가 커지면 그 일에 더 몰입하게 된다.

TIP 5.**수시로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 하는 Z세대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시로 대화하고 피드백하는 문화가 조성돼 있다면, Z세대들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TIP 6.**성장을 위한 피드백 보내기**

건설적 피드백은 Z세대들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솔직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Z세대들은 성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직설적이더라도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배려한다고 돌려서 말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피드백해 주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할 것이다. 적시에 하는 빠른 피드백 역시 중요하다. 비행기를 운행할 때 보통 자동 항법 장치를 사용하는데, 가야 할 목적지에서 1도만 어긋나게 입력해도 나중에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처음에는 차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피드백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고서인가요? 제대로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실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알아서하기를 바라겠지만 Z세대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 맞춰 문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왔다. 이것이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다. 넷플릭스의 전 CTO 패티 맥코드는 “회사는 프로 스포츠팀이지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로들이 모여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곳이 훌륭한 조직이라는 의미다. 솔직하고 빠르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잘 지켜도 많은 어려움이 사라지고 Z세대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그니 그 신입 직원은 잘 지낼 것이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책에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쓰여 있다”라는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당시는 ‘어른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어른이 되더라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게 소통하며 살아야겠다고 했던 것 같다.



우린 X세대였지...

‘요즘 애들’의 초반부를 살던 중·고등학교 시절. ‘요즘 애들은 겁도 없이 담임을 담탱이라고 부른다’는 사회의 지적이 있었다. ‘무릇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같은 얘기는 그때도 곧대(놀랍게도 이 단어는 전 세대에서 통용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서 그렇다고 무시했다.

성년이 되자 X세대 바람이 불며, PC통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채팅방에는 ‘하이루, 방가방가’ 같은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써야 X세대인 것 같았다. PC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좀 더 짧게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PC통신 이전에도 줄임말은 있었지만,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과 달리 키보드를 통해 타자로 전달하려 하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게다가 채팅 중 필수불가결인 오타까지 합세했다. ‘안냐썸어(안녕하세요)’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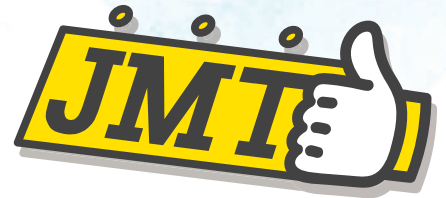
직접 만나 대화하면 제스처나 억양으로 알 수 있던 뉘앙스가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좀 더 센 표현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찾았다. ‘대단하다’가 ‘짱’이 됐다. ‘킹왕짱’이 된 것처럼. ‘망했다’도 ‘폭삭’이 추가돼 ‘폭망’을 쓰다 보니 ‘망했다’로만 말하면 지금 얼마나 망한 상태인지 이야기하기엔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표현이 세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짧아지고, 세지고, 빨라진다

X세대의 인기그룹이었던 O15B 노래 가사 중엔 동전 2개(놀랍게도 10원 동전)를 들고 공중전화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 뽀뽀를 거쳐 휴대전화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오는 데는 채 3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음성 대신 키보드 위의 열 손가락으로 채팅을 하던 이들은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니 단어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생선은 문상으로 쥐(이번 생일 선물은 문화상품권으로 쥐)”라는 10대들을 보라며 개탄한 일간지의 기사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크크’ 하는 웃음 대신 ‘ㅋㅋ’가 된 것은 이미 X세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ㅇ(인정)’ ‘ㅂㅂ(반박불가)’ 같은 초성 신조어가 거의 일상이 됐다.

인터넷 밈(meme : 비유전적 문화요소)에서 파생되는 신조어도 많다. 게임에서 파생된 신조어 ‘신박하다’나 ‘고인물’이 거의 일상용어가 된 것처럼, 누군가 시작한 ‘리얼?(진짜?)’이 ‘레알’이 되고 ‘ㄹㅇ’로 자리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ㄱㄴ 신입 직원은

아무리 이런 신조어나 축약어가 유행이라고 해도 대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를 가리면서 한다. 특히 업무적인 관계라면 더욱더 조심하게 마련인데 다양한 신조어들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올 때가 있다.

특히 이런 인터넷 신조어에 익숙해진 신입 직원들의 패기 아닌 패기가 업무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문제다. ‘○월 ○일 전 직원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열었더니 본문은 ‘ㄱㄴ(제곧내-제목이 곧 내용)’라고만 돼 있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그 신입 직원은 지금쯤 대리 정도 직급일 텐데 다른 신입 직원이 그런 메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

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X세대라 불렸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직의 관리 직급이 됐다. ‘ㅋㅋㅎㅎ’를 시작했던 세대들이 ‘ㅇㅇ’나 ‘ㄹㅇ’을 쓰는 걸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억지로 소통을 한다며 신입 직원에게 단체 메신저 방에서 “ㅎㅎ” “우리 ○○ 씨 좀 킹왕짱이네” 같은 위험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집이 그 맛집이랑 슬세권(역세권과 같은 의미로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잖아”라며 대화하는 이들에게 못 알아들을 말을 한다고 짜증내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말도 그 속도에 따라 변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정 궁금하면 슬쩍 검색해 보는 선에서 끝내는 미덕이 필요하다. 물론, 부장님이 단체방에 ‘따봉’을 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 역시 미덕이겠다.



첨단과학을 응용한 문화재 연구로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가면 오래전 시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한 듯 느껴질 만큼 잘 보존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유물을 발굴한 후 오랜 시간 공들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보존처리 등을 해낸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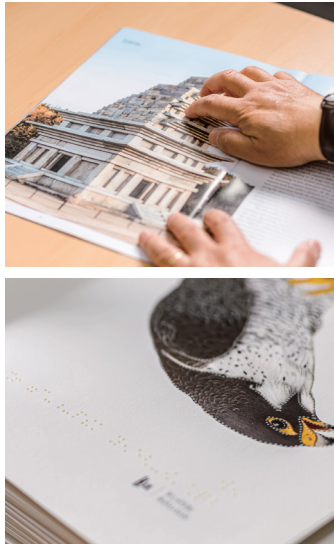
우리 회사에서 차로 10분 남짓이면 닿는 가까운 이웃,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병목 소장을 만났다.

대전 시대, 과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다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문화재는 매우 목직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를 통해 국격을 높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보존과학, 자연문화재, 안전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국가 유일의 국가유산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올해로 52년째 국가유산의 가치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오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69년 경북궁 근처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인 문화재관리실로 출발해 1975년 문화재연구소로 거쳐 1995년 지금의 명칭으로 정착했다. 지병목 소장은 그 사이인 1988년 문화재연구소 공채 1기로 입사해 30여 년 동안 연구소 현장 곳곳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제10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지병목 소장은 1990년대 들어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고도(古都)로 불리는 경주, 부여, 창원 등의 지방 도시에 문화재연구소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의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 2000년대는 더욱ダイ내믹한 변화가 이어졌다. 2004년 정부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34년간의 서울 세종로 시대를 마감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 대덕연구단지지로 이전한 것이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대전 시대 개막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명실상부한 문화재 연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병목** 소장 인터뷰

의 메카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기존 실의 분화와 복원기술연구실과 자연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등 조직의 확장과 더불어 탄탄한 과학적 연구 기반을 다지게 됐죠.”

그 결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과(행정운영과, 연구기획과), 7실(고고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7지방연구소(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 완주), 1센터(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지병목 소장은 조직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활동폭과 성과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커졌다고 힘주어 말한다.

첨단과학기술로 봉인된 역사의 비밀을 풀다

초창기인 1980년대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활동 영역은 다소 협소했다. 천마총, 안압지, 황남대총 등 큰 유적지와 전국 사찰에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출토된 유물들을 응급처리하는 데 머무른 것. 문화재 안내판을 만드는 일도 연구소의 업무 중 하나였다.

국가 차원의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발굴, 보존 및 복원에 탄력이 불기 시작한 데는 과학기술의 도움이 적잖았다. 가령, 예전에는 유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직접 파서 확인했다면, 지금은 물리탐사기법을 이용, 지하부의 고해상도 영



상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을 진행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과 접목한 문화재 연구는 지난 4월 15일 개관한 문화재 분석정보센터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문화재 분석 연구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이 총망라된 문화재분석정보센터는 유물 시료(뼈, 석재,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과거사의 비밀을 푸는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전까지는 출토된 유물을 쓸고 닦고 녹을 벗겨 내는 등의 단순 작업 위주였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을 동원해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출토 유물의 분석과 보존작업이 가능해진 것. 그중에서도 연대측정은 문화재 연구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지병목 소장의 설명이다.

“유물이 출토되면 보통 어느 시대 것인지가 가장 궁금해하는데,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면 정확한 연대를 밝혀 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중에서도 원자력과 연관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람 뼈를 분석했을 때 이전에는 추측에 불과했던 사망 시기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는 무엇을 먹었는지, 체질인류학 분석으로는 키, 성별, 질병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죠.”

지병목 소장은 지금까지 국내외 기관에 분석을 의존해 왔지만 오는 8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가속질량분석기를 도입하면 그동안 봉인됐던 유물의 역사적 비밀을 하나둘 밝혀 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은 연구소 바깥에서도 활발하게 응용된다. 일례로, 형태가 남아 있지 않은 유물을 AR·VR기술을 활용해 실물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역사적 오류를 줄이는 한편 문화재 훼손의 위험요인을 없애기도 한다. 지금은 사라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건축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 유물의 원형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추

정으로 복원한 건축물은 진정성 면에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설령 충분한 고증을 거쳐 가장 타당성 있는 건축물로 복원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복원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따릅니다. 하지만 증강현실이라는 첨단과학기술의 힘을 빌리면 유적을 보호하면서도 언제든지 모델링을 변환해 수정 가능하죠.” 신라시대 최대 사찰인 경주 황룡사의 황룡사지석탑 복원 프로젝트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 실제로는 터만 남아 있는 유적지지만 현장에서 제공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하면 직접 사찰 내부를 둘러볼 수 있고, 유물을 배경으로 실제 느낌 그대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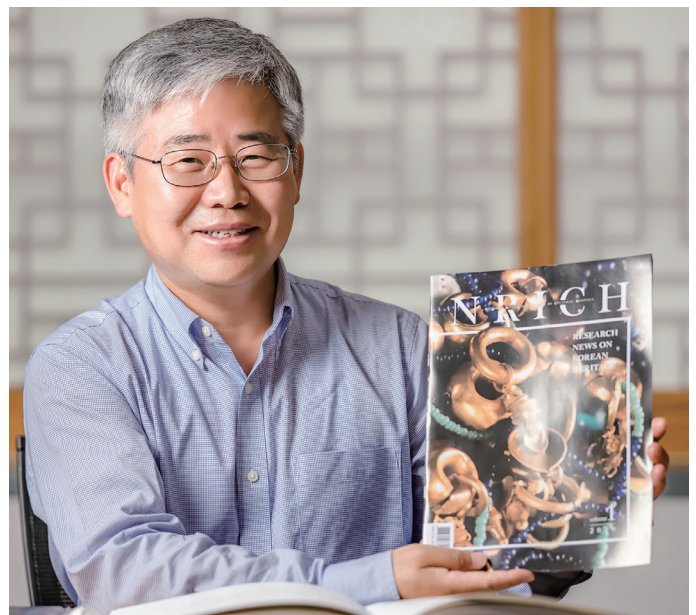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브로 시대와 호흡하는 문화재

유물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새롭게 밝혀 내거나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역사를 바로잡을 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존재감을 가장 또렷하게 느낀다는 지병목 소장은 익산 미륵사지석탑 복원사업을 그 예로 들었다.

“미륵사지석탑 복원작업 중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유물이 발굴됐어요. 금제사리봉안기였는데,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에게 청해 미륵사를 세운 것으로 기록된 삼국유사와 달리 실제로 발굴된 유물에는 선명한 글씨로 무왕의 왕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선화공주가 아니라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고 쓰여 있어 당시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천연기념물 동물 이야기>. 점자와 함께 소리펜으로 동물의 소리나 민요, 동요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영문판 홍보잡지 <NRICH>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송해 보존처리 진행 중인 창덕궁 인정전의 '일월오악도'



보물 '쌍자총통'을 보존처리하는 모습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로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지병목 소장은 최근 고고학, 미술사학, 보존과학 등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축적해 온 연구 성과가 전문가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임기 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문화재 아카이브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우리 문화재의 우수한 콘텐츠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임 이후 영문판 홍보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국제기구와 외국대사관, 문화원, 해외 여러 나라 대학 등에 보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한동안 위축됐던 현장 업무도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직접 닿기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띄우거나 수상 장비를 투입해 조사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 국내 문화재 연구와 별개로

인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 중단된 상태인 북한 문화재 조사연구 대신 지난해부터 DMZ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재가 좀 더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세계 속에 파고들길 바란다는 지병목 소장은 연구기관들의 집합지인 대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융복합 연구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바람도 추가했다. 그중에는 당연히 우리 회사도 포함돼 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 생산 및 공급으로 국가 에너지 자립에 앞장서고 있다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 문화재를 통해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접점도 분명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알고 나니 더 친근하고 뿌듯한 이웃,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들려줄 더 많은 역사 이야기와 함께 우리 회사와의 뜻깊은 상생 프로젝트를 기대해 본다.

재테크에 뛰어드는 직장인 내 집 마련 꿈꿔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암호화폐와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재테크는 자금을 불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이다. 밀레니얼 세대까지 투자에 뛰어드는 가운데 5월 초순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모도 접근성을 높인 개인 대주서비스가 재개됐다. 재테크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직장인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초고령화사회의 재테크와 자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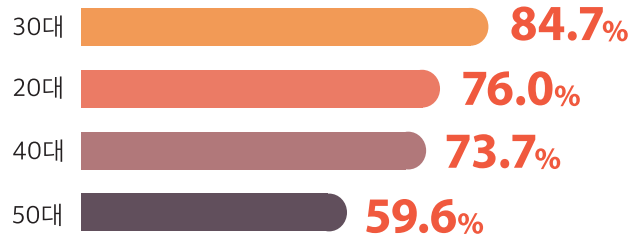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화사회를 겨우 5년 앞둔 이때 직장인은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정년 나이는 60세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8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1%가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직장인 가운데 30대는 84.7%로 다른 연령보다 재테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59.6%로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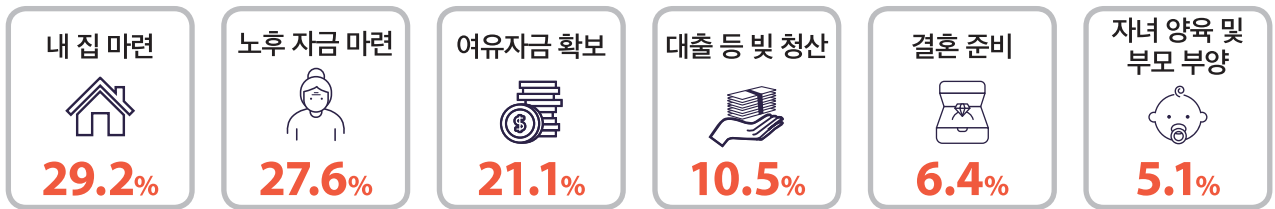
재테크 하는 직장인 77.1%



연령별로 살펴본 재테크 여부



재테크 왜 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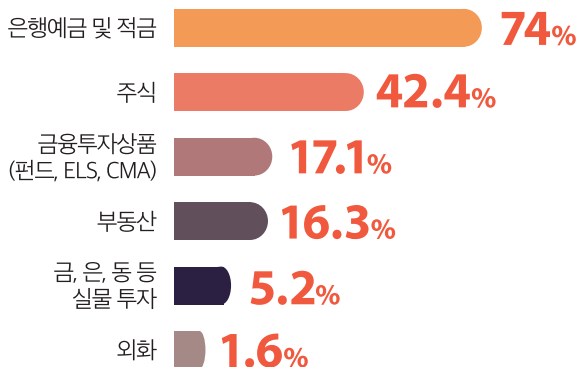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퇴직 시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및 평균이직연령(55~64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다. 실제 퇴직이 정년보다 빨랐던 직장인의 경우 자금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재테크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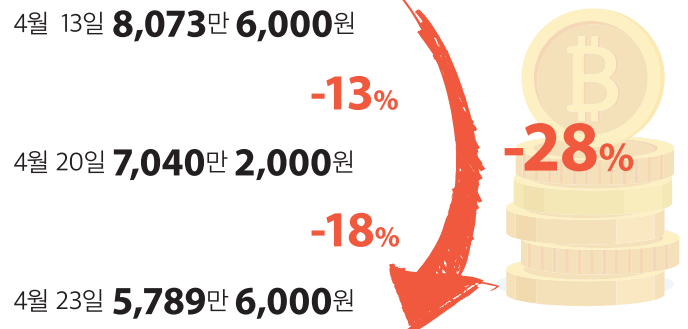
위험성 고려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해야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위험성이다. 고수익 재테크 수단은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 초저금리 시대에도 직장인 다수(74.0%)가 위험성이 낮은 은행예금 및 적금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030세대가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한다(42.4%)'는 직장인도 절반 가까이 됐다. 실제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 들고 있다. 그러나 재테크를 통해 불안정한 생활을 한 방에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4월 13일 8,073만 6,00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후인 4월 20일 7,040만 2,000원으로, 3일 후인 4월 23일 5,789만 6,000원으로 급락했다. 10일 전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28% 감소한 것을 볼 때,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5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재테크 수단을 찾아 활용해야 현명한 노후 대비가 될 것이다.

재테크 수단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현황





용감한 여성들의 반란

인도에서 벌어진 여성 대상 성범죄 신화의 주인공이 된 여성운동가 풀란

인도는 지상에서 여자가 살기에 가장 힘든 곳이다. 부모의 강압으로 6세 소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만 성적으로 성숙한 20대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혼의 이유는 지참금, 성폭력(강간) 등인데 특히 인도 사회의 고질적 신분제도와 천민 출신 여성들의 희생이 크다. IT 강국으로 첨단기술의 상징인 인공지능을 발사한 인도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2012년 12월, 23세의 대학생(의과대학) 싱(Singh)은 친구와 함께 늦은 저녁 학교 전세 버스에 승차했다. 버스에는 술에 취한 6명의 남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버스 문을 잠그고 두 여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 후의 일은 인기 어려운 정도였다. 남자들 6명은 차례대로 싱을 강간했고 싱이 반항하자 쇠파대를 성기에 쏘서 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인도 전국을 경악시켰다. 법정에서 강간범들은 자기들보다 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항변했다.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여자들의 '잘못된 옷'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법정은 할 말을 잃었다. 인도에서 강간은 흔하게 발생한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분에 1건 일어난다.

인도에서 용감한 여성 반란군 대장으로 알려진 풀란(Phoolan Devi)은 남편을 포함한



마을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는 자신에게 죄지는 남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노상 강도단에 합류해 먼저 남편을 살해 하고 그 시체를 당나귀 등에 싣고 마을을 헤맸다.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풀란을 여성운동의 화신으로 칭송하며 무섭지만 고 귀한 여신상으로 숭배했다. 감옥에서 11년을 보낸 풀란은 인도 의 열악한 여성 인권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2001년 어느 날 풀란은 백주에 그가 죽인 강간범의 친 척에게 사살됐다. 인도 국민은 카리스마 넘치는 그를 살아 있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승격시켰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인도 시 골 마을에서는 열광하는 서사시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에게 적용된 엄격한 율법 이슬람 등 종교 문화권에서 관습으로 남아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성기절제(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수술이 강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성 단체들은 FGM이 수술 중, 또는 출산 중 산부와 아기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 로 반대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장기 집권 끝에 망명한 감비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FGM이 이슬람의 율법이고 감비아의 문화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WHO는 최소한 30여 개 국가에서 1억 3,000만 여성이 FGM을 당했으며 이집트, 기니, 소말리아, 시에라리온의 경우 여성의 90% 이상이 FGM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명예살인’이라면 과거 일본의 막부 정권에서 사무라이(무사)들이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 할복을 감행한 자살을 연상하게 된다. 그 러나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이란 부녀 간 에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을 말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미혼의 딸 이 강간범에게 희생되면 부모들은 오히려 딸의 품행에 문제가 있 어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 ‘집안의 망신’ 또는 ‘집안의 불명예’로 생 각해 응징 차원에서 딸을 살해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통계 에 의하면 2008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명예살인으로 3,000명 이상의 여성이 희생됐다.

아일랜드에서 ‘타락한 여자’란 종교가 박해한 여성의 대명사를 말한다. 아일랜드는 1922년 독립됐으나 재정난으로 사회복지 사 업을 종교단체에 위임했다. 가톨릭은 학교, 병원, 소년원, 미혼모 시설 등을 운영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근친상간이 나 사고로 임신한 여자들을 타락한 여자로 분류했다. 이 여자들

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세탁소로 보내져 무임금으로 하루 내내 가혹하게 세탁 작업을 강요당했다. 1767년부터 1996년까지 230 년 동안 운영된 세탁소 체인은 혹독한 강제노동의 중심이었다. 탈 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톨릭은 여자들의 머리를 삭발했고, 세탁 소 운영 책임자인 신부들은 타락한 여자들을 강간해 임신시키기 도 했다. 가톨릭은 매우 가부장적이다. 교황이 규율을 정하면 주 교는 강단에서 이를 발표하고 신부는 수행한다. 임신한 소녀들을 수녀원으로 끌고 온 것은 신부였고 수녀들은 신부의 부름에 응답 할 뿐이었다.

14년간 세탁소에서 혹사당했던 메리라는 여성(현재 80대)은 인 터뷰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사과입니 다. 수녀들, 신부들, 정부, 교황, 그 누구도 내가 죽기 전에 꼭 사과 를 받고 싶어요.” 1922년에 아일랜드는 인구의 93%가 가톨릭 신 도였으나 오늘날은 20% 미만만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억압의 상징을 벗은 여성들 ‘부르카’ 반대 운동이 성공하길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오랜 관습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2001년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보 호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 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으나 탈레반은 산악지대에 지휘본부 를 두고 정부군과 투쟁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탈레반 반군은 이슬람 율법을 고수하 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억압의 상징인 부르카 (Burqa)를 벗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겠다는 이른바 ‘부르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고 최소한의 기초교육 기회 마저 부인하는 엄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부르카 반대 운동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이 불행해지면 가정이 불행해 지고,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도 불행해진다. 마을 이 불안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고 따라서 지구촌의 평화도 유 지될 수 없다. 성폭력, FGM, 명예살인, 여성에 대한 혐오와 인권 유린 등 남성 중심적 사회의 뿌리 깊은 아집은 반드시 그리고 즉 시 해결돼야 한다.

지긋지긋한 두통 고질병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혹은 수면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두통은 현대인이 앓는 매우 흔한 신경과 질환이다. 어깨와 목이 긴장됐을 때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니 평소 목 주변 근육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을 습관화한다면 지긋지긋한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 참고 :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운동가이드 '목-어깨 통증 & 두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헬스에디터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두통, 제대로 알고 치료하기'



며칠 동안 지속되는 두통 흔한 질병이지만 관리 필요해

● 두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질환 없이도 겪는 증상이다. 그래서 두통을 질병으로 생각하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통제를 먹거나 참기도 한다. 실제로 두통은 뇌에 질환이 없어도 발생하는 1차성 두통과 뇌출혈, 뇌염 등의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2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에서 느끼는 두통은 1차성 두통인데, 한번 발생하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기에 몸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직장인이 벗어나기 힘든 1차성 두통 운동과 스트레칭이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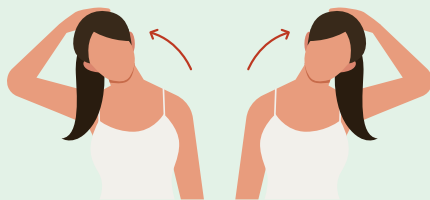
● 1차성 두통 가운데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은 뒷머리의 뻐근함, 머리 전체의 멍함 또는 쑤시는 느낌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러한 긴장형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의 수축, 잘못된 자세, 피로,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피로 상황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세를 바로잡고 운동하는 것이 긴장형 두통을 없애는 해결책이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 주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된다.

긴장된 목·어깨 근육 이완 스트레칭
하루 3~5차례 10초씩 3~5세트



의자에 앉아 목을 좌우로 돌린다. 이때 상체는 정면을 향하도록 고정하고 양손으로 의자 밑을 잡고 당긴다. 같은 동작을 좌우로 각 5세트씩 마무리한 다음 의자를 양손으로 잡은 자세를 유지한 채 정면을 바라본다. 그리고 목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다시 스트레칭한다.

사무직 직장인의 거북목 교정
두통 및 요통까지 없애는 30초



반듯하게 일어서서 한쪽 팔을 허리에 갖다 댄다. 반대 팔로는 머리 옆통수를 잡아 30초 동안 눌러 준다. 이때 목과 어깨 근육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옆통수를 누르면 된다. 같은 동작을 반대편도 동일하게 하며 3번 반복한다.

머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는 마사지
10초씩 5세트 반복

머리와 목이 만나는 뒷목 부분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1세트당 10초 동안 마사지하며 하루에 총 5세트 한다. 귀 바로 위쪽 머리도 양손 주먹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두통이 완화된다.



포슬포슬 따뜻한 감자로 든든한 한 끼 감자그라탱 & 감자크로켓

※ 참고 : 만개의 레시피



단·짠의 부드러운 매력

감자그라탱

익힌 감자에 생크림과 치즈를 올린 감자그라탱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가정식 요리다. 으깨거나 구운 감자의 부드러움을 생크림으로, 단·짠의 조화를 치즈로 끌어올린다. 맥주 안주 또는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감자그라탱은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다.

TIP

감자를 더욱 맛있게 삶으려면

감자는 껍질째 삶았을 때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 냄비에 감자가 잠길 정도의 물과 약간의 소금, 후추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센 불에서 20~25분 동안 삶는다. 다만 중간에 젓가락으로 감자를 찌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자에 구멍을 내면 그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 맛이 떨어진다.

[재료] 감자 2개, 베이컨 2장, 양파 1/2개,
모차렐라치즈 50g, 우유 250mL, 버터 1(큰술), 밀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소금 및 후추 각 1(작은술)

[만드는 방법]

- ① 감자를 0.5cm 두께로 자른 후 냄비에 약 15분 삶는다.
- ② 삶은 감자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 ③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인 다음 채 썬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는다.
- ④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 밀가루를 넣고 또 볶는다.
- ⑤ 우유, 감자, 구운 베이컨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볶는다.
- ⑥ 그릇 위에 모차렐라치즈를 얹고 전자레인지에서 4분간(700W) 녹인다.

바삭바삭 입안의 즐거움

감자크로켓

튀김 요리를 집에서 하기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남은 기름을 처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삭하게 튀겨 낸 감자의 매력은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 기름을 적게 사용해 건강하면서도 맛갈스러운 감자크로켓을 맛볼 수 있다.

[재료] 감자 3개, 당근 1/3개, 달걀 2개, 햄 100g, 양파 1/2개, 우유 1/2컵, 빵가루 및 밀가루 각 1컵, 소금 및 후추 각 1(작은술)

[만드는 방법]

- ① 감자를 깍둑 썰어 냄비에 약 20분 삶는다.
- ② 당근과 양파, 햄을 다지고 볶는다.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 ③ 삶은 감자는 물기를 제거하고 으깨다가 우유를 넣어 섞는다.
- ④ 볶아 둔 재료도 넣어 섞고 소금으로 다시 간을 맞춘다.
- ⑤ 3~4입 정도의 크기로 ④를 뭉친 다음 밀가루와 달걀물, 빵가루를 입힌다.
- ⑥ 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량 두르고 굴려 주면서 튀긴다.

TIP

튀김 요리 후 기름 처리하기

주방에 사방으로 튀긴 기름은 키친타월로 닦아도 미끈거린다. 깨끗이 뒷정리를 하려면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름이 튀긴 부분에 밀가루를 얇게 뿌린 다음 2~3분 정도 두면 밀가루가 기름을 흡수한다. 기름을 먹은 밀가루는 물수건으로 닦아 주면 된다.

튀김 기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한 기름에 양파를 튀기면 좋다. 양파는 살균 기능이 있어 기름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후 기름에 남은 찌꺼기를 커피 여과지로 걸러내면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만 기름을 유리병에 보관하고 1~2주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낮선 방식으로 직조된 익숙한 긴장 SNS 시대의 '딸 찾아 삼만 리' 그린 <서치>



PC(Personal Computer)가 과연 집집마다 필요할까 의구심을 품던 세월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의 손마다 PC 부럽지 않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공유하는 걸 넘어 어느덧 사람들은 SNS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SNS는 개인의 소통 채널일 뿐 아니라 기업의 홍보채널이고 다양한 플랫폼과 맞물리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각종 미디어 플랫폼이 범람하는 시대, SNS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영화 <서치>는 그래서 흥미롭다.

<서치>

감독 아니쉬 차간티

출연 존 조, 데브라 메싱, 미셸 라 등

러닝타임 101분

등급 12세 관람가

SNS 시대의 실종 수색법

컴퓨터를 기반으로 그려지는 집요한 탐색

영화 <서치>는 SNS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실종사건과 엮어 풀어낸 서스펜스 스릴러다. 주인공은 실종된 딸을 찾아 온라인을 뒤지는 아빠 데이빗 김(존 조). 화상회의와 컴퓨터 작업에 익숙한 엔지니어인 그는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딸 마고(미셸 라)를 찾아 백방으로 뒀진다. 기존의 동일장르 영화와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빗이 살살이 뒤지는 기록과 공간이 소위 가상이라 불리는 온라인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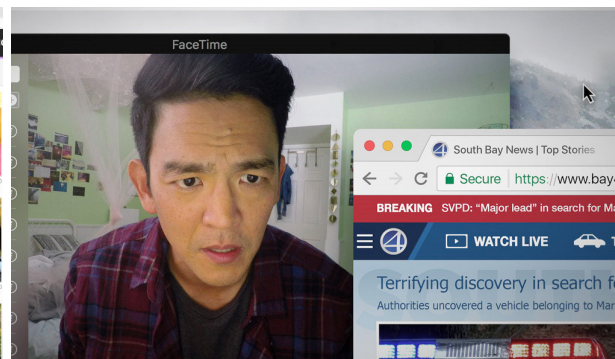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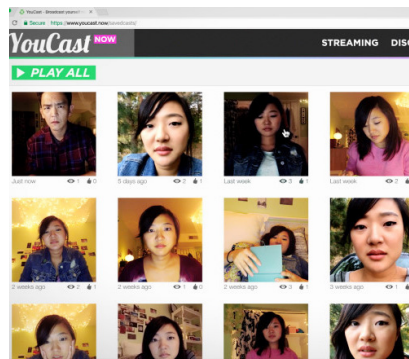
오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온라인 연결 소음이 들리고 화면이 밝아지면 익숙한 윈도우 시작화면이 영상을 채운다. '테크 스릴러'라는 홍보성 해시태그를 붙이고 세상에 나온 영화치고는 의외로 뻘하다 생각하려는데 곧이어 사용자 계정설정과 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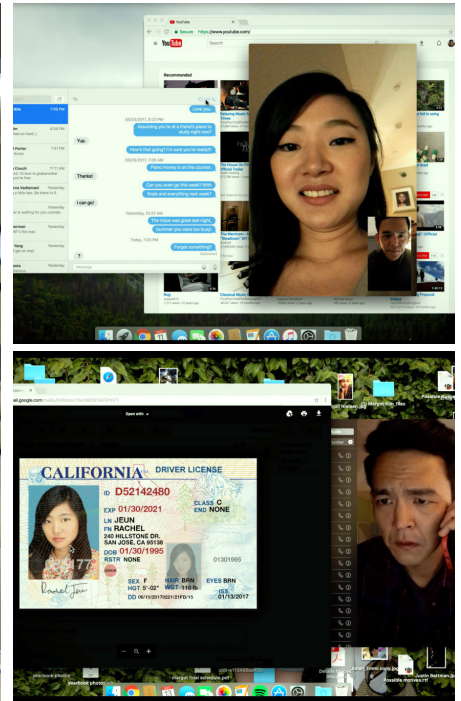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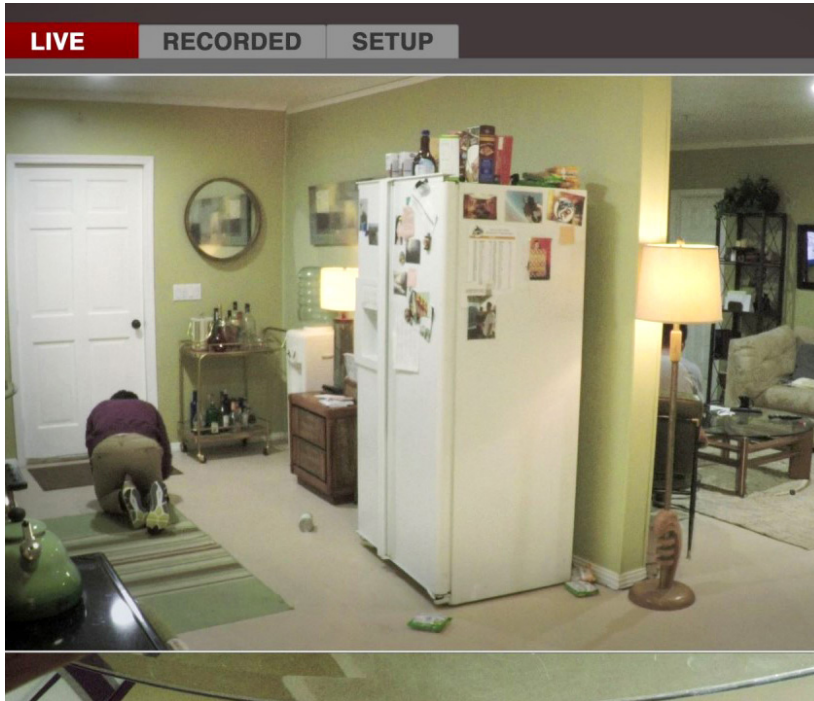
캠을 통해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관객의 예상을 슬쩍 비껴간다. 타이틀이 뜨는 방식도 컴퓨터의 문자 입력 창을 닮았다. 반복되는 일정표 입력과 삭제, 유튜브와 SNS 계정을 통해 기록되는 가족의 이야기를 엿보듯 따라가는 사이, 셋이었던 가족은 둘이 된다.

영화를 보는 건지 누군가의 컴퓨터(웹캠)를 통해 일상을 엿보는 건지 슬슬 혼동이 오기 시작할 무렵, 관객의 심중에는 어느

새 이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자리한다. 엄마를 잃은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 어쩐지 서먹해 보이는 아빠와 딸의 관계를 걱정하려는 찰나, 딸 마고로부터 연락이 두절된다. 아빠 데이빗의 감정이 짜증에서 걱정으로 완전히 변하는 순간 영화는 장르적 특성을 전면에서 드러낸다. 실종신고와 수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긴장.

재미있는 것은 그 또한 거의 전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





SNS 탐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 사건을 접수한 형사의 수사 과정은 데이빗과의 통화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형사의 지시로 마고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흔적을 찾아보는 데이빗의 행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치우쳐 있다. 무작정 학교에 찾아가는 대신 마고의 SNS 계정을 살피고 연결된 친구들을 통해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다. 확인된 내용은 엑셀 시트에 고스란히 기록된다. 탐색은 집요하다.

**익숙한 이야기를 낯설게 만드는 구성
한 땀 한 땀 CG로 완성한 옛보기의 긴장**

영화는 절박한 아버지의 부성애를 웹캠과 스마트폰 영상통화, CCTV와 유튜브 영상, 뉴스 화면 등을 활용해 그려 낸다. 철저하게 미디어의 창 안에서 묘사되는 ‘딸 찾아 삼만 리’는 단조로운 듯 흥미롭다. 감독은 1인 미디어 시대라 불리는 트렌드를 스릴러 장르 안에 담기 위해 거의 모든 장면을 웹캠 영상인 양, 영상통화인 양 하나하나 CG로 채웠다. 그야말로 장인에 버금가는 정성이

다. 덕분에 영화는 시점을 자유롭게 오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배우들은 영상통화를 하듯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다시 일상을 살아 내듯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이내 돌아온다. 이러한 방식은 낯설지만 효과적이다. 웹캠을 통해 보이는 침실, 검색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과거, 보여 주고자 한 일상과 감춰 둔 마음의 기록이 번갈아 화면에 그려질 때마다 <서치>는 성큼성큼 동시대 관객에게 다가선다. 불 꺼진 영화관 좌석에서 구경하는 남의 이야기였던 영화 속 드라마가 관객의 아주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친근한 이야기 같다. 어쩌면 내 딸도 내가 모르는 온라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않을까? 어쩌면 내가 보아온 정보가 전부 꾸며진 가짜 이야기는 아닐까?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적인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영화는 어느새 클라이맥스에 다다른다. 반복되는 웹캠 영상이 지루해졌다 싶을 때쯤 올드 미디어라 불리는 뉴스 영상이 화면을 채우고, 영화는 감춰 두었

던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단서는 역시나 온라인에 있었다. SNS는 인생의 낭비라더니 하며 혀를 차다가 마침내 그 낭비의 기록들 사이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 <서치>가 관객을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히든카드인 셈이다. 영화는 묻는다. 범람하는 정보와 미디어들 사이에서 개인은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 혼란 앞에 노출된 각자의 삶은 안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 목도한 그 행복은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을까? 당연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옛보기와 기록에서 출발한 영화의 본질이 SNS와 멀리 있지 않고, 모두를 모두에게 노출시킬 장치가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각자의 손에 들려 있는 이상 낭비는 계속될 것이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탐색하기 위해 영화라는 장치가 가능해 온 세월만큼,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SNS는 모두를 위한 양날 검이 되어 줄 테다. 네트는 광대하고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한 줄이 아닐까.

KNF NEWS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참가

우리 회사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세계원자력에너지산업전'에 전시 부스를 열어 원자력 연료모형 3종과 고유 기술을 홍보했다. 전시된 연료모형은 한국형 원전 노형 OPR1000과 APR1400에 공급 예정인 독자개발 고성능 원자력연료(HIPER16) 집합체 모형과 개량형 경수로 원자력연료(ACE7), 중수로 원자력연료(37M) 모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제36회)'와 '제9회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도 동시에 개최됐다.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는 올해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1년도 제1차 KNF-KNF파트너스 노사 상생협의회 개최

우리 회사는 4월 30일 자회사인 KNF파트너스와 모회사인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노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KNF-KNF파트너스 노사 상생협의회'는 모회사인 우리 회사와 자회사인 KNF파트너스의 노사 간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했으며, 8명의 위원(모회사 위원 및 자회사 위원 각 4명)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해 향후 반기별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KNF-KNF파트너스 노사 상생협의회는 협의회 발족 후 제1차 회의로서 상생협의회 운영기준(안)을 확정하고 상호 부의된 상생 안전에 대해 협의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KNF-KNF파트너스 노사 상생협의회를 통해 양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우리 회사는 4월 2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청렴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기존 옴부즈만 4명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은 김진세 세무사 등 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청렴옴부즈만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를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방역키트 후원

우리 회사는 5월 2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4곳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키트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 위생용품 구매가 부담스러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제작됐다. 방역키트는 KF94 마스크, 손 소독젤, 소독 티슈, 세정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시설 4곳에 2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시사, 경주지역 독거어르신 가정에 후원물품 전달

우리 회사 경주시사는 어버이날을 앞둔 5월 3일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경주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공기정화식물, 효퍼즐, 라면, 카네이션 등 물품을 구입,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우리 회사 경주시사는 경주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물품 및 후원금 기탁

우리 회사는 4월 29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방역물품 지원 및 후원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지원한 방역물품은 방역마스크(KF94) 4,000장으로, 우리 회사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송강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후원금으로 마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으로, 유성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유성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랑의 닭강정' 나눔 봉사 후원

우리 회사는 4월 6일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닭강정' 나눔 행사를 후원했다. 나눔 행사는 사랑의 사다리 밴드, 송강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유성구 송강지역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200여 명에게 닭강정을 전달했다.



뜨거운 태양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쏟아 내는 열정

세계의 명승지로 떠나 봅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원자력연료>가 멋진 해외여행 사진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및 독자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 드려요! 5+6월호에는 <원자력연료> 독자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여행지 사진 합성 이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으로 떠나는 여행

폼페이

폼페이는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덮힌 비운의 미스터리 도시로 당시의 폐허된 모습을 원형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폼페이의 유적은 당시 로마의 사회·경제·종교·정치 생활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얻고, 당대의 생활상까지 짐작할 수 있는 독특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원자력연료> '꿈의 사진관' 이벤트를 통해 많은 의미를 담은 이탈리아 나폴리 남쪽의 폼페이로 떠나 봅시다.

우도형 님(서울특별시 강남구)



Italy

유유히 바다를 건너는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과 410개의 다리, 160개의 운하가 있는 인공수상도시이자 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1년에 몇 차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아쿠아 알타 현상이 발생해 위험하고 불안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젊고 잘생긴 곤돌리에가 유유히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으면서 건물과 다리 사이를 지나가는 곤돌라를 빠트릴 수는 없죠. 수심 3~4m 바다 위를 건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특히 스릴 만점입니다. 다시 한번 조용한 바다 위에서 스릴을 느끼고 홀로 명상에 잠기고 싶어요.

박옥희 님(부산광역시 북구)



기울어진 건물 앞에서 몸을 맡기다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은 13~14세기에 걸쳐 지은 8층의 둥근 탑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탈리아의 상징물입니다. 공사 중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꼭대기에 있는 6톤 무게의 종이 압박해 매년 1mm씩 남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죠. 현재 5.5°의 경사가 나 있어 안타까움과 위태로움을 느끼게 해요. 15세기 말에 갈릴레이가 낙하의 법칙을 실험하기도 했다고 한 피사의 사탑 앞에서 아슬아슬한 사진을 남겨 볼까 합니다.

우정렬 님(부산광역시 중구)



7+8월호 '꿈의 사진관'에서는 캐나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멋진 사진 합성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진과 함께 가고 싶은 캐나다 여행지, 사연을 보내 주세요.

※ 보낼 곳 : bandi2020@naver.com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